

◇선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심자체를 일념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대정스님이 선정삼매에 들었다.



즉 드높 위해 속가를 그만두었고 수행을 통해 도를 성취하고 도를 성취함으로써 부처가 되었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거든. 정진은 물러섬이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해. 부처님 오신 뜻을 따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왠만한 일이는 흔들림없이 일념으로 정진하는 일이 부처님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일념으로 정진하는 일, 그것은 스님의 일상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기도 하다. 3년 전과 변함없는 것이 스님의 색신뿐 아니라 간소한 방안 풍경, 한결같은 정진 등에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방 중앙에 놓인 널은 좌복, 작은 옷장 2개. 그리고 전화기. 이것이 전부인 스님의 방은 그러나 전혀 부족감을 느낄 수 없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방바닥을 내려다보다 "방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짐짓 딴청을 피워본다.

"방은 운동삼아 하루에 한번씩 청소하고 누가 다녀가면 청소하고 그러지. 시봉이나 마을신도들이 청소를 해주려고 하는데 전부 금지야. 나이가 많을수록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하거든. 청소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삼시세때 큰방가서 대중공양하고 그래. 그 외에는 꼭 나가야 할 일외에는 안 나가고, 해야 할 말외에는 입을 닫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종종 공부하는 이들이 찾아 오면 부득히 만나 줄게 대해주고 지도해 주고 있지. 그외에는 고요히 앉아 한마음 한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16살에 속가 떠난 이후 오늘까지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어. 오직 한길, 한뜻 뿐이지. 일구월심, 일편단심, 물철주야하고 지내고 있지. 오늘까지 51년간 항상 그대로 오매불망 도를 위해 살고 있지. 이제 남은 것은 도를 마무리하고 몸 줄게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어."

염불이든 선이든 일념으로 해야



◇대정스님이 휴휴정사 마루에서 기자와 대담하고 있다.

실제 스님의 철저하고 검약한 생활은 후학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스님의 일념정진으로 스님의 방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처음엔 지나는 스님들이 왜 밤에 불을 끄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또한 스님은 빨래도 당신이 손수 하시므로 손이 많이 가는 삼베, 모시 등 천연소재로 된 옷은 없다. 신도들이 해오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 주물러서 털면 그만인 것으로 계절별로 딱 두벌의 옷이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 스님의 승복 동정밖으로 보이는 속의티가 수상하다싶더니, 스님께서 손수 밀에 단을 잘라 목둘레에 손바느질로 기워 입으셨단다. "밝은 날 마루에 앉아 바늘 귀 끼고 바느질했더니 목이 말이 파여서 불편하면 것이 해결됐지. 허허허."

'평상심이 곧 도'라 했던 선사들의 가르침을 스님의 바느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어렴풋이 짐작해 본다. 스님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해 보여 오히려 특별하기까지 하다.

"도란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느끼고 아는 것에 얽매여 있으니 문제지. 이 모든 것은 참이 아닌데 참으로 생각하고 속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속으니까 이게 곧 미혹이요, 어둠이거든. 말하자면 푸른 하늘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구름 즉, 번뇌망상이 가득 일어나니 하늘이 없어지는 듯 보이거든. 그런데 푸른하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것을 가렸을뿐이잖아. 도라는 것도 그와 똑 같아. 그래서 도를 위해서는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중생들은 다생다겁을 두고 근본을 잊어버린채 견문각지에 얽매여 살아 나왔거든. 그러니 그 습관을 소멸해야 돼. 그런데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익힌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법에 의지해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차츰차츰 해결이 되는거지 하루아침에 해결나는 게 아냐. 그리고 마음이란 것은 어떤 생각이나 말로는 알수가 없어. 진심은 견문각지를 초월해서 오직 자신의 근본 마음을 깨쳐야만 드러나게 돼. 그러기 위해선 선을 해야해. 선의 진면목은 화두인데 화두이게 좀 어려워. 알고 보면 화두가 가장 쉬운 것인데도 말야. 화두는 의심이거든. 그러니 이 알수없음의 의심이 해결되면 일체 지혜를 얻게 되고 금강반야를 깨닫게 되어 있어.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없는 것과 같이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의 마음이 없고, 부처의 마음에는 중생심이 없고 무명이 있으면 반야가 없고 의문, 즉 알지못함이 있으면 깨침이 없거든. 중생이 의심이 없으면 부처란 말이지. 화두, 이것만 타파되면 전체가 파탄되고 만법에 통달하게 돼. 원리는 간단한 것이라 화두는 천하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천하에 어려운 것이야. 허허허. 결국 깨침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이 나는데, 깨침을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이론보다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 결국 '수행'만이 부처를 이루는 출발이며 끝이라는 말씀이다. 스님은 또한 수행에는 기본수행법과 근본수행법이 있다며 기본 수행법은 염불, 예불, 기도, 주력, 독경 등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근본수행법은 참선 즉 근원적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정리했다.

"선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심자체를 일념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야. 습관화된 마음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안되기 때문에 염불, 기도, 참회 등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거야. 그러나 염불, 기도 주력도 열심히만 하면 결국 한마음이 되거든. 한마음이 되면 화두에 계합이 되는때가 와. 그때부터 진짜 공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일념이 되는 것이 중요해. 부처님말씀에 일념정심으로 도량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 검은유리 칠보로 보배탑을 세우는것보다 공덕이 크다는 말이 있어."

근원을 해결하는 길을 부처님은 이미 2546년전에 오셔서 일러 놓고 가셨다. 길을 일러주신 안내자를 따라 그 길을 가고 안가고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부처님은 전능의 구제자가 아니라 다만 길을 일러주는 도사(導師)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따라 51년을 살아오신 대정스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서 실천은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r@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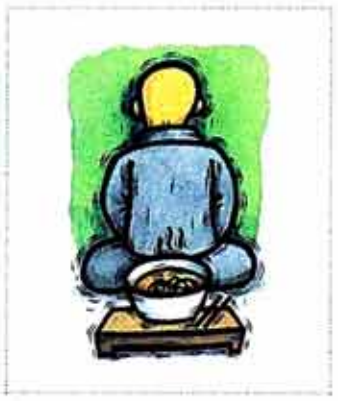
홍법스님



홍법스님은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의 제자이며 서울 구룡사 정우스님의 은사스님이다. 나에게는 사숙님이고 통도사 강원 스승이셨다. 내가 강원생활을 하던 60년대 후반은 모든 것이 모자라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홍법스님같은 진심한 수도자를 만날 수 있었고, 때묻지 않은 양심을 지녔던 스님들을 뵐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난다'는 말이 홍법스님과 정우스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홍법스님의 어른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다. 스님은 조석 예불을 마치고 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스승이신 월하스님의 방으로 가서 문안을 드렸다. 우리 반에는 스님의 직계 상좌는 없었지만 조카 상좌들이 몇 있었는데, 스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어른들께 문안 좀 드리면서 살아라. 어찌하여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문안을 그렇게 가지 않느냐?" 꾸중을 하셨지만, 우리들의 어른 문안은 길어야 며칠이었고,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한 도량에서 하루 세끼 공양을 같이 하며 얼굴을 마주 보고 사는 은사스님에게 매일 문안을 드리고, 은사스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 받아들이고 따르면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스님은 키가 크셨고 눈이 커서 겁이 많아 보였다. 장삼을 입고 도량을 다닐 때는 뒤꿈치를 들고 소리나지 않게 다니셨다. 걸음걸이에서도 수행자의 기품이 배어 있었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얼마나 인욕하고 하심하는지 알 수 있었다.

60년대 후반은 탈레할 때마다 다려 입어야 했던 광목이나 무명 베옷이 나일론에 밀려 버림받던 시점이었다. 어린 사미들은 손질하기 힘든 광목옷보다 물에 집어넣었다가 건져서 툴툴 털어 잠시 바람을 쏘이면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일론 옷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백프로 나일론 옷인 다우다가 생기면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서로 자랑하였고, 떨어지지도 않은 광목옷을 버리곤 했다.

스님께선 도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버려진 무명옷들을 주워놓곤 하셨는데, 하루는 팡팡 얼어가는 겨울 계곡물에 혼자 빨래를 하고 계시길래 내가 해드리려고 다가갔더니 한숨을 쉬시며 그러셨다.

"그냥 두세요. 요즘 스님들은 시주 물건 무서운 줄 모릅니다. 보세요. 멀쩡한 옷을 이렇게 버리다니, 이렇게 중노릇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주워놓은 옷들을 차가운 계곡물에 하루종일 빨아서 풀먹이고 다려서 개어 두었다가 행자들이나 옷이 없는 객스님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다.

라면이 처음 나왔던 그 때, 라면 공양이 들어오면 그것은 특별 공양이었다. 우리는 저녁공양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빈 발우를 펐다가는 거두고 모두 급한 걸음으로 천자각(天子閣)으로 몰아왔다.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삶으면 그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부엌은 홍법스님의 방과 붙어있어 냄새가 진동했으니 스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다.

"대중이 대중공양을 안하고 이렇게 별식을 만들어 먹으면 대중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그 삶는 것이 무엇입니까? 냄새가 너무나 역겹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스님에게는 역겹다니…. 스님은 보통사람이 아닌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라면을 새로 개발된 국수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수는 스님들 모두 좋아하시니 스님께서도 좀 드시라' 하면 방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도 안 거르고 은사 문안
즐기는 僧笑 "시간지났다"거절

"일 없습니다. 출가인이 이 시간에 라면을 먹으면 되나요? 저녁 공양 뒤에는 귀신들이 먹는 시간인데 수행자가 그 시간에 무엇을 먹으면 귀신이 좋아라 달려붙습니다."

스님들은 대부분 국수를 좋아한다. 불가에서는 국수를 승소(僧笑)라고 하는 것도 스님들이 국수를 보면 웃음을 머금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인 듯하다.

홍법스님께서도 국수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면서도 시간이 아니라 하여 드시지 않고 깨끗이 치우라고 당부하면서 방문을 닫으시던 스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셨다. 지관스님, 원운스님, 각성스님 그리고 홍법스님께서 운허스님을 가운데 모시고 통도사 적멸보궁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흰 글씨로 '강원대교 졸업기념'이라고 적혀 있었다. 위의 스님들은 통도사 강원에서 운허스님을 모시고 몇 년을 공부하여 졸업사진까지 찍었으나, 마침 운허스님께서 해인사로 가시는 바람에 졸업식을 해인사에 가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인사 강원 졸업 1기생이 통도사 강원 1기생인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奉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祝

불교TV 2546년 부처님 오신날 주간 특집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생중계
▶방송시간 : 5월 12일(일) 17:00-22:10 (1부, 2부, 3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생중계
▶방송시간 : 5월 19일(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특집 좌담 "불교 포교 현장을 점검한다."
* 군포교의 현장 [대담 : 조계종 포교사단]
* 불교 문학과 포교 [대담 : 정원영 선생(시조시인)]
* 불교 복지와 포교 [대담 : 조계종 사회복지관재단, 진각종 복지재단]
▶방송시간 : 월(5/13), 화(5/14), 수(5/15) / 11시 55분 / 16시 45분 / 22시

특집다큐멘터리 "의상대사"
▶방송시간 : 5월19일(일) / 7시40분 / 17시35분

특집다큐 "달라이라마의 칼라차크라 법회" [2부작]
▶방송시간 : 목(5/16), 금(5/17) / 11시55분 / 16시 45분 /22시

특집다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청스님]"
▶방송시간 : 토(5/18) / 11시55분 / 16시45분 / 22시

진각종 다큐멘터리 [2부작]
▶방송시간 : 5월 19일(일) 19시15분(1부) 20시20분(2부)

특선영화 "비단장자리" [국방홍보원 제작]
▶방송시간 : 5월 19일(일) 8시40분/ 23시20분

부처님과 함께
불교TV와 함께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공초한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 (02)3270-3498

www.btn.co.kr
www.btni.co.kr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시청방법
• 케이블TV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시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위성방송 신청문의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